

광주·전남서도 '빚투'?... 12월 가계대출 1조 돌파

11월 광주 5293억·전남 4875억... 2008년 통계 이후 처음 12월 주식투자 19조8815억... 거래대금 전년비 809% 늘어

한은 광주전남본부 '코로나 후 자금 흐름'

코로나19 생활고와 주식투자 열풍과 맞물린 '빚투'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가계 대출이 처음 1조원을 넘겼다.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자금 수요(여신·대출)가 지역 내에서 조달한 자금공급(수신·예금)을 넘어서며 '여수신 역전현상'도 일어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액은 광주 5293억원·전남 4875억원 등 1조168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가계대출액 2606억원(광주 1408억원·전남 1198억원)과 비교하면 3.9배(290.2%) 급증

한 수치다.

광주·전남 월별 가계대출이 1조원을 넘긴 건 지난 2008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처음이다.

지역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54.7%)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1월 주택담보대출액은 광주 3184억원·전남 2373억원 등 5557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겼다.

광주·전남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상위권에 들고 있다. 전년과 비교한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서울(12.4%)에 이어 전남(9.7%), 대구(9.4%), 광주(8.7%) 순으로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서울(9.9%)에

이어 전남(9.1%)과 광주(8.9%)가 나란히 2~3위에 들었다.

가계대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김재영 한은 광주전남본부 과장이 최근 펴낸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지역 자금흐름의 주요 특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의 추세와 달리 자금 수요(여신·대출)가 지역 내에서 조달한 자금공급(수신·예금)을 넘어섰다.

지난해 1~10월 중 여신 증가액은 11조원으로 수신 증가액 8조700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여수신 증가액 역전 현상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여신은 3조8000억원, 수신은 2조5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2016년 3조9000억원 이래 가장 규모가 크다. 김재영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에다 주택 구

입, 주식 투자자금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자료를 보면 광주·전남 투자자들이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주식(코스피·코스닥 합산)에 쏟아 부은 돈은 19조881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배(809.2%) 거래대금이 뛰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광주 0.32%·전남 0.10%로, 광주 연체율은 전국 평균(0.23%)을 웃돌았다.

김 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경기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확대, 원리금 상환유예 추가 연장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가계의 재무상황 능력이 복원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별 금융기관은 위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합원 출자배당 2.97%
이용고배당 지급금 6억
광주문화신협 정기총회

광주문화신협은 지난 22일 북구 신용동 본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제28차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2020년 결산 기준 조합원 출자배당은 2.97%, 이용고배당 지급금은 총 6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주문화신협은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 추가 지급되는 이용고배당은 전국 신협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누적 29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고영철 이사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음에도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2.97% 배당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방은행 최고 수익성·건전성 갖춘 선도은행 도약하자”

광주은행 1분기 경영전략회의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22일 오후 1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선도은행(리딩뱅크)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송중욱 은행장과 각 영업점 점장 등은 이날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1분기 경영전략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수익성 증대를 통한 기초체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양대 축으로 하는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과제는 순이자마진(NIM) 개선, 전략적 비용 관리, 고객기반 강화, 전략 대출 증대, 선제적 건전성 관리, 전략적 디지털 금융전략 추진 등이다.

탄력적인 점포운영과 직원 생산성 증대, 수익성과 질적 성장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글로벌 시장 개척도 포함됐다.

송 행장은 회의에서 "가속화하는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에서 올하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야 할 때"라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함께 지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22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열린 올해 1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역과 상생 발전하는 밀착 경영은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은행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1377억원에,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안정성과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자비율 등에서 지방은행 최고 수준의 기록을 달성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광주·전남 중기 온실가스 감축 추진

한국남동발전과 업무협약

해양에너지는 지난 21일 한국남동발전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LNG) 연료전환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병커C유, 경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도시가스 공급사인 해양에너지가 유류 및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 산업체에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을 추진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설비교체 및 운영비용의 저리용자(동반성장협력대출)와 온

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배출권 발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해양에너지는 도시가스 신규 공급처를 넓히고, 남동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은 연료비용을 줄이고 배출권을 판매해 경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기관 집무실에서 별도 서명한 협약서를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종갑(오른쪽 두번째) 한전 사장과 이남(맨 오른쪽)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지난 22일 '상생형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 나주 에너지밸리 기업 개도국 진출 지원

상생형 ODA 업무 협약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나주 에너지밸리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진출 지원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22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와 '상생형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 개발협력사업(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은 개도국의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와 연계해 국내 전력·에너지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돕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2021~25)'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한전과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가 해외 에너지 개발·투자 및 연계한 ODA 수요를 발굴하면, 산업기술진흥원은 발굴된 수요를 토대로 개도국의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이후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기획된 ODA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석영철 산

업기술진흥원 원장, 이남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전운중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에너지밸리는 한전과 지자체가 협력해 에너지 산업 중심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미래성장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이월까지 501개 기업을 유치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도복권 (제94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8	17	20	27	35	2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75,855,750	18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65,992,539	58
3	5개 숫자일치					1,202,881	3,182
4	4개 숫자일치					50,000	146,908
5	3개 숫자일치					5,000	2,351,804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dsuh.co.kr

통증·재활 교통사고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진료네트워크 : 광주·목포·나주·서울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
YM Orthopaedic Hospital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치료

☎ 대표전화 062)606-8275

서구 운천로148 2, 3, 5층 (상무중학교 옆)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밝은안과21병원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현변방향 062)354-9000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

상무스타치과병원

대표원장 김은규

임플란트 치아교정 보철틀니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지평동 1236-3)타일스타워빌딩 7층
T. 062-367-8889 FAX. 062-367-8822

www.saewoori.com since 2002

광주 새우리병원

2018년 1월 원장 2018, 2019, 2020년 3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추 유일 척추전문 병원

지정기간 : 2018.01.01 ~ 2020.12.31

척추전문병원

광주 화정동 농성역 4번출구 대표전화 062)603-8000